

청소년 작업치료에 관한 작업치료전공 학생들의 인식도 분석: 대한민국과 미국의 비교 연구

배수빈*, 신채림*, 서효원*, 이민정*, 김은택*, 감경윤**

*인제대학교 보건의료융합대학 작업치료학과 학생

**인제대학교 보건의료융합대학 작업치료학과 교수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미국에서 작업치료를 전공하는 학생들의 청소년 작업치료에 대한 인식도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2023년 1월 9일부터 동월 13일까지 대한한국과 미국에서 작업치료를 전공하는 학생 각각 55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작업치료에 대한 인식도와 관련한 온라인 설문을 시행하였다. 온라인 설문은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되어 해당 국가 학생에게 제공되었다. 자료 분석은 기술통계와 독립표본 *t*-검정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결과 : '청소년 작업치료를 들어본 적 있는가(Q1)'에 대한 문항에 대한민국 학생은 65.5%가 '있다'라고 답했고, 미국 학생은 58.2%가 '없다'라고 답했다. 양국 학생 모두 '청소년 삶의 질에서 청소년 작업치료의 중요성(Q10)'라는 문항에는 높은 평균점수를, 반면 '청소년 작업치료의 발전 현황(Q11)'에 대한 문항에서는 낮은 평균점수를 나타냈다. '청소년 작업치료의 향후 발전 가능성(Q12)'에 대해서는 양국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5$).

결론 : 양국 학생들은 청소년 작업치료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발전 가능성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주제어 : 대한민국, 미국, 인식도, 청소년 작업치료

I. 서론

청소년기(adolescence)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 10세에서 19세까지로 정의하고 있으나(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23), 청소년기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률, 의학, 심리학 등 각 분야별로 차이가 있으며 또한 나라별로도 차이가 있다. 그러나 핵심적인 청소년기의 특징은 한 개인이 완전히 독립된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존감, 가치관 및 정서 조절 능력이 형성하는 시기이다(Kang, 2014; Park, 2009). 일반적으로 청소년은 이 시기에 이루어져야 할 발달 과업을 원활히 이루고, 성인기로의 전환을 위한 올바른 자아정체성을 형성하여야 한다(Heo, 2008). 그러나 선천적 혹은 후천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발달상의 문제를 겪는 장애 청소년들 및 심리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비장애 청소년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아효능감을 가지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Ahn & Park, 2022).

따라서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년기 사이의 발달 전환기로 이 시기의 장애 청소년의 삶에 작업치료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일상생활활동, 신체기능, 인지기능 및 웰니스 증진을 위한 작업을 제공한다면 청소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작업치료사가 신체·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위한 중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일상생활 및 올바른 자아 정체성 형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Pasek & Schkade, 1996). 청소년기의 자아정체성 형성을 비롯하여 신체적·정신적 장애에 대한 자신과 타인의 시각 등은 사회문화적 맥락에 크게 영향을 받는 부분이므로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성장하는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치료적 중재도 달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점은 신체적 기능회복에 초점을 두는 물리치료보다 신체적 기능에 더하여 인지 및 심리적 장애를 포괄하여 다루는 작업치료에서 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학문이나 기술이 발달할수록 분야의 세분화와 전문화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현상은 보건의료 분야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Detsky et al., 2012). 현재 국내 작업치료 분야에서는 청소년을 아동 작업치료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작업치료 분야의 발달과 함께 청소년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청소년 작업치료라는 분야의 구분과 발전이 필요하다. 미국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의 상황 또는 특성에 맞는 작업치료 중재가 신체적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청소년 대상 정책 수립에도 기여한다고 보고한 것을 통해 청소년 작업치료는 개인의 보건적 차원을 넘어서서 청소년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역할을 할 수 있다(Armstrong-Heimsoth et al., 2020; Fedele et al., 2021).

하지만 국내에서는 청소년 작업치료와 관련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며, 대학의 작업치료 교육과정에서도 청소년 관련 내용은 세부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Jung, 2014). 또한 작업치료 대상자에 청소년이 포함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도 낮은 편이다(Lee et al., 2018). 국내외에서 예비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임상 실습에 관한 인식도 조사(Jones et al., 2005; Lee et al., 2018), 운전 재활이나 고령 친화 산업 연구 인식도 조사 등은 있었으나(Jeong & Sin, 2019; Kim & Yang, 2020) 청소년 작업치료 영역에 관한 인식도를 조사 분석한 연구는 없다.

본 연구는 현재 작업치료를 전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작업치료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고자 하며, 특히 서로 다른 문화권이면서 작업치료가 우리나라보다 먼저 발달한 미국의 경우를 함께 조사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대한민국과 미국 대학(원)생 간의 청소년 작업치료에 대한 인식도 비교를 통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며, 청소년 작업치료에 대한 적절한 교육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이 연구의 결과가 후속적인 청소년 작업치료에 대한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연구 방법

2. 연구 도구

1. 연구 기간 및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청소년 직업치료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보고자 2023년 1월 9일부터 1월 13일까지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는 대한민국 또는 미국에 거주하며, 세계직업치료연맹(World Feder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교육 인증을 받은 대학에서 직업치료를 전공 중인 대학(원)생으로 대한민국 55명, 미국 55명 총 1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은 구글폼(docs.google.com)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설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설문조사를 위한 링크는 학과 홈페이지 게시판, 소셜네트워크, 문자 등을 통해 제공되었다. 국내 대상자는 국문 설문지, 미국 대상자에게는 영문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모든 연구 대상자는 본 연구 목적을 이해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하였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과 미국의 직업치료를 전공하는 대학(원)생의 청소년 직업치료 인식도를 비교분석 및 탐색하기 위하여 고령자와 고령·친화 산업에 관한 인식도 조사를 시행한 선행연구(Kim & Yang, 2020)의 설문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총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Table 1, 2). 국문 설문지를 먼저 개발한 후, 영문 설문지는 영어와 한국어를 모두 모국어 수준으로 사용할 줄 아는 자가 번역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것은 2문항으로 성별, 학위 과정이며 청소년 직업치료에 관한 인식에 대한 것은 12문항(Q1~12)이다. 문항의 내용은 정량적 응답이 가능한 것과 정성적인 것으로 구분되며, 그중 Q1, 3번은 예, 아니오로 물었고, Q2, 4, 9번은 5지선다로 물었으며, 정량적 응답이 가능한 Q5, 6, 7, 8, 10, 11, 12번은 Likert 5점 척도로 물었다. 본 연구에서 Q5, 6, 7, 8, 10, 11, 12번 항목을 대상으로 한 도구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대한민국 .853, 미국 .715이다.

Table 1. Contents of Survey Questionnaire

Items category	Number of questions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2
Perception of the adolescent occupational therapy	12

Table 2. Questions About Perception of the Adolescent Occupational Therapy

Questions
Q1 Have you ever heard of adolescent occupational therapy?
Q2 How did you find out about adolescent occupational therapy?
Q3 Have you ever experienced a clinical practice in adolescent occupational therapy?
Q4 If you have a clinical experience in adolescent occupational therapy, which organization did you do it?
Q5 Do you think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the areas of adolescent occupational therapy?
Q6 Do you think there is a need for a specialized organization for adolescent occupational therapy?
Q7 Would you be willing to work in a specialized organization for adolescent occupational therapy if you were given the opportunity to work there?
Q8 Do you think it is necessary to get a teenager-related education in preparation for adolescent occupational therapy?
Q9 If you are being educated about adolescent occupational therapy, how do you think you should be educated?
Q10 Do you think that adolescent occupational therapy can help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eenagers?
Q11 Do you think that adolescent occupational therapy is sufficiently advanced in your country?
Q12 Do you think that the field of adolescent occupational therapy will expand in the future and prominently known?

3. 자료 분석

먼저 청소년 직업치료 임상 실습 경험에 따른 청소년 직업치료의 인식도를 살펴보고, 인식도에 따른 청소년 직업치료 영역 구분의 필요성 및 향후 발전 가능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비교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은 기술 통계분석을 사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Likert 척도를 사용한 문항에 대한 대한민국과 미국의 결과 평균값의 비교는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에는 SPSS version 25.0 (IBM Corp.)을 사용하였다.

성별은 남성 15명(27.3%), 여성 40명(72.7%)으로 나타났다. 학력 수준은 학사 과정 52명(94.5%), 석사 과정 2명(3.6%), 석·박사 통합 또는 박사 과정 1명(1.8%) 순이었다(Table 3).

한편, 미국에서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는 총 55명으로 성별은 남성 12명(21.8%), 여성 43명(78.2%)으로 나타났다. 학력 수준은 석·박사 통합 또는 박사 과정 34명(61.8%), 석사 과정 16명(29.1%), 학사 과정 5명(9.1%) 순이었다(Table 3).

2. 대한민국과 미국의 직업치료를 전공하는 대학(원)생 대상 '청소년 직업치료' 인식도 비교

Likert 척도로 질문한 7개 문항에 대한 대한민국과 미국의 결과에 대한 비교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대한민국과 미국 대상 청소년 직업치료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 양국 모두에서 '청소년 삶의 질에서 청소년 직업치료의 중요성(Q10)'에 대한 문항의 평균점수가 각각

III. 연구 결과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대한민국에서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는 총 55명으로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Korean and United States Students (N = 110)

Variable	Category	Korea (n = 55)	United States (n = 55)
		n (%)	n (%)
Sex	Male	15 (27.3)	12 (21.8)
	Female	40 (72.7)	43 (78.2)
Degree course	Undergraduate	52 (94.6)	5 (9.1)
	Master course	2 (3.6)	16 (29.1)
	Doctorate course	1 (1.8)	34 (61.8)

Table 4. Likert Scale Questions About Perception of the Adolescent Occupational Therapy

Question	Korea (n = 55)	United States (n = 55)	<i>t</i>	<i>p</i>
	Mean ± SD	Mean ± SD		
Q5	3.98 ± 1.09	4.15 ± 0.78	-0.902	.369
Q6	4.00 ± 1.07	4.05 ± 0.78	-0.305	.761
Q7	3.98 ± 1.13	3.82 ± 1.09	0.773	.441
Q8	4.29 ± 0.97	4.16 ± 0.78	0.753	.453
Q10	4.29 ± 1.06	4.65 ± 0.55	-2.247	.027*
Q11	2.64 ± 1.25	2.85 ± 0.95	-1.029	.306
Q12	3.47 ± 1.03	3.91 ± 0.80	-2.476	.015*

SD = standard deviation.

*Asterisk indicate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 < .05).

대한민국 4.29 ± 1.06점, 미국 4.65 ± 0.5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청소년 직업치료의 발전 현황(Q11)’ 문항의 평균점수가 대한민국 2.64 ± 1.25점, 미국 2.85 ± 0.95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양국 간의 비교에 유의한 차이가 나는 문항은 ‘청소년 삶의 질에서 청소년 직업치료의 중요성(Q10)’과 ‘향후 청소년 직업치료 영역의 발전 가능성(Q12)’에서 대한민국과 미국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5$) (Table 4).

1) 청소년 직업치료에 대한 전반적 인식

대한민국에서 ‘청소년 직업치료를 들어본 적 있는가(Q1)’에 대한 문항 조사 결과, ‘있다’가 36명(65.5%), ‘없다’가 19명(34.5%)으로 절반 이상의 학생이 청소년 직업치료에 관해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미국의 경우, ‘있다’가 23명(41.8%), ‘없다’가 32명(58.2%)으로 절반 이상의 학생이 청소년 직업치료에 관해 들어본 적 없다고 응답하였다(Table 5).

2) 청소년 직업치료의 학습 경로

대한민국에서 ‘청소년 직업치료의 학습 경로(Q2)’에 대한 문항 조사 결과, ‘전공 수업’ 24명(43.6%), ‘학습한 적 없음’ 19명(34.6%), ‘관련 서적 또는 논문’ 6명(10.9%), ‘기타’ 6명(10.9%) 순이었다. 미국 학생의 경우 ‘학습한 적 없음’ 32명(58.2%), ‘기타’ 10명(18.2%), ‘전공 수업’ 6명(10.9%), ‘인터넷 서치’ 4명(7.2%), ‘관련 서적 또는 논문’ 3명(5.5%) 순이었다(Figure 1).

Table 5. Results of ‘Have You Ever Heard of Adolescent Occupational Therapy?’ With Korean and United States Students (N = 110)

Question		Korea	United States
		(n = 55)	(n = 55)
		n (%)	
Q1	Yes	36 (65.5)	23 (41.8)
	No	19 (34.5)	32 (58.2)

3) 청소년 직업치료 임상 실습 경험 여부

대한민국에서 ‘청소년 직업치료 임상 실습을 경험한 적 있는가(Q3)’에 대한 문항 조사 결과, ‘있다’가 36명(65.5%), ‘없다’가 19명(34.6%)으로 대다수가 청소년 직업치료 임상 실습을 해 본 경험이 있었다. 반면, 미국 학생의 경우 ‘있다’가 8명(14.5%), ‘없다’가 47명(85.5%)으로 대다수가 청소년 직업치료 임상 실습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Table 6).

4) 청소년 직업치료 임상 실습을 경험한 기관

대한민국에서 ‘청소년 직업치료 임상 실습을 경험한 기관(Q4)’에 대한 문항 조사 결과, ‘병원’ 28명(50.9%), ‘경험한 적 없음’ 19명(34.6%), ‘센터’ 6명(10.9%), ‘학교’ 2명(3.6%) 순이었다. 미국 학생의 경우, ‘경험한 적 없음’ 47명(85.5%), ‘센터’ 5명(9.1%), ‘학교’ 2명(3.6%), ‘병원’ 1명(1.8%) 순이었다(Figure 2).

5) 청소년 관련 교육의 방식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청소년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Q9)’에 대한 문항 조사 결과, ‘임상 실습’ 2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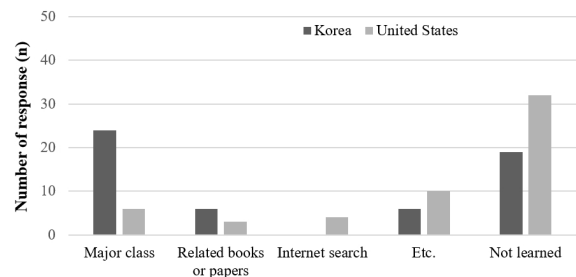


Figure 1. The Way of Finding out About Adolescent Occupational Therapy

Table 6. Results of Q3 With Korean & United States Students (N = 110)

Question		Korea	United States
		(n = 55)	(n = 55)
		n (%)	
Q3	Yes	36 (65.5)	8 (14.5)
	No	19 (34.5)	47 (8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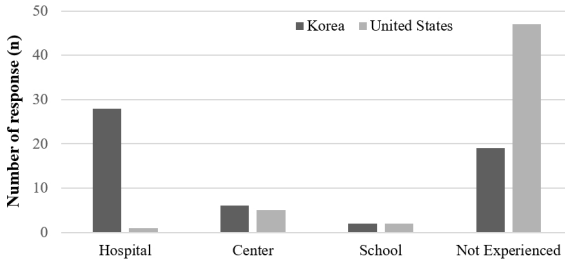


Figure 2. A Clinical Practice Organization Where Students Experienced Adolescent Occupational Therap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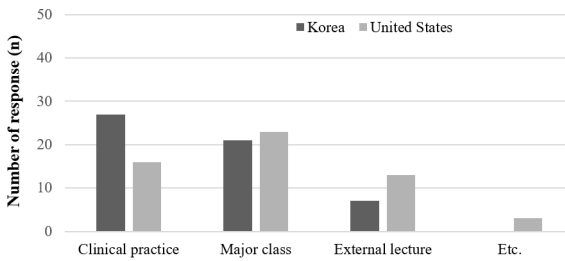


Figure 3. Students' Thought on the Optimal Educational Method for Learning Adolescent Occupational Therapy

(49.1%), '전공 수업' 21명 (38.2%), '외부강의' 7명 (12.7%) 순이었다. 미국 학생의 경우, '전공 수업' 23명 (41.8%), '임상 실습' 16명(29.1%), '외부강의' 13명 (23.6%), '기타' 3명(5.5%) 순이었다(Figure 3).

IV. 고찰

현재 직업치료 대상 영역이 크게 아동과 성인으로만 나뉘어져 있고, 청소년은 아동 직업치료의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나 사회의 고령화와 직업치료 분야의 발전과 함께 노인 직업치료가 독립적인 위치를 정립하고 있는 것처럼 저출산과 인구 감소의 시대를 맞아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치료 중재가 필요하다(Jung, 2014). 따라서 직업치료사는 청소년에 대해 더욱 잘 알고, 그에 맞는 중재를 통해 청소년기의 발달 과업을 이루게 도울 수 있어야 할 것이다(Lim & Jones, 2017).

그러나 청소년 직업치료의 개념, 즉 아동 직업치료와 성인 직업치료와는 달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치료가 무엇인지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측면에서도 영유아, 학령기 아동, 일반 성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치료에 비해 그 인지도가 낮다.

청소년 직업치료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기의 기준이 나라별로 다르고, 법률, 의학, 심리학 등 각 학문 분야별로도 다르다. WHO에서는 청소년기를 10~19세로 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20; 2022). 또한 의학계에서도 WHO의 청소년 기준보다는 10~24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시되고 있다(Sawyer et al., 2018). 그러나 우리나라 미국 모두 일반인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재학 연령인 만 13세에서 만 19세를 청소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이 시기를 틴에이지(teenage)라고 부른다(Jacobson & Wilkinson, 1994). 청소년 직업치료의 대상은 특정한 연령 범위를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아동과 성인 사이, 즉 사춘기 이후 부모에게서 독립하기 이전의 상태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문화적, 그리고 일상생활의 측면에서 청소년의 특성에 부합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Compas et al., 1985).

본 연구의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학위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학사 과정 52명(94.5%), 미국은 석사과정 이상이 50명(90.9%)으로 미국에서 대학원 재학생들의 응답 비율이 높게 조사되었다. 이는 대한민국과 미국의 직업치료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차이로 인한다. 대한민국은 직업치료(학)과의 학부과정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에게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지만 미국의 경우, 미국직업치료교육인증위원회(Accreditation Council for Occupational Therapy Education)로부터 승인받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부터 직업치료사 국가자격시험(National Board of Certification for Occupational Therapists Certification Exam)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에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대한민국과 미국 간 학위 과정의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부분이 응답의 차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는 후속 연구를 통해 교육 수준별 인식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미국이 청소년 작업치료와 관련이 있는 학교 작업치료 서비스가 우리나라보다 먼저 시작하고 관련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Lee et al., 2015), '청소년 작업치료 영역에 대한 인식(Q1)'에 대한 문항 조사 결과, 대한민국은 절반 이상이 청소년 작업치료 영역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청소년 작업치료 학습 경로(Q2)'에 대한 문항 조사 결과, 대한민국은 '전공 수업', 미국은 '학습한 적 없음'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조사되어 청소년 작업치료의 인식도는 대학 교육과정에서의 학습 유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작업치료 임상 실습을 경험한 학생(Q3)' 문항 조사 결과, 대한민국은 절반 이상이 경험했으나 미국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앞선 'Q1'의 조사 결과와 유사한 점수를 보였다. 대한민국의 응답자는 작업치료 임상 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다수 응답한 반면, 미국의 응답자는 임상 실습 경험을 하지 않은 작업치료 학위 과정 초반에 있는 학생들의 응답 비율이 높아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학생들이 '청소년 작업치료 임상 실습을 경험하였던 기관(Q4)'에서 대한민국은 '병원', 미국은 '센터'에서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한민국은 의료기관 중심으로 임상 실습이 이뤄지고 있지만 미국은 학교 작업치료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아동 작업치료가 시행되고 있기에 임상 실습을 통해 청소년 작업치료를 접할 기회가 많다(Gardner et al., 2012; Koenig, 2021; Tremblay et al., 2023). 정부 지원센터나 개인센터 중심으로 자폐스펙트럼장애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청소년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와 약물 의존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와 작업치료가 주로 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Nguyen et al.,

2016; Stratton & Gailfus, 1998). 이를 통해 양국에서 청소년 작업치료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게다가 본 연구 참여한 미국 학생 대부분은 설문 시점인 1월에는 강의 수업에 참여하고 3월 이후에 임상 실습이 예정되어 있었기에 임상 실습 경험이 없었다. 이는 대한민국과 미국의 학제 특성을 고려하지 못해 임상 실습 유무에 대한 대상자 변수를 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학생의 청소년 작업치료 인식도는 임상 실습 경험 유무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크므로 차후에는 이 요소를 고려한 조사가 필요하다.

'청소년 작업치료의 영역 구분의 필요성(Q5)'에 대한 문항 조사 결과, 양국 모두 청소년에 초점을 맞춘 작업치료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작업치료 이외의 영역에서도 청소년 전문 치료사가 심리적인 사회적 개입을 하며 증재를 제공했을 때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난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Ha et al., 2004). '청소년 작업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 기관의 필요성(Q6)'에 대한 문항 조사 결과 또한 양국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다. 즉, 본 연구는 청소년 작업치료를 위한 전문 기관 설립을 위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전문 기관에서 일하고자 하는 의향(Q7)'을 묻는 항목에서 앞선 'Q6'에서와 마찬가지로 양국 모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것을 보아 양국의 학생들은 청소년 작업치료 전문 기관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전공 교육과정에서 청소년 작업치료에 대한 내용을 더욱 자세히 다룸으로써 예비 작업치료사들에게 해당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기회를 제공하고 더불어 향후 청소년 작업치료에 대한 영역을 넓힐 필요가 보인다.

'청소년 작업치료 영역 구분에 대비한 청소년 관련 교육의 필요성(Q8)'에 대한 문항 조사 결과, 양국 모두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과 Jang (2023)의 작업치료 전공 학생에게 감각통합 증재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해당 영역에 대한 인식도와 이해도가 올라간 연구 결과를 미루어 보아 청소년 관련 교육을

제공한다면 청소년 작업치료 영역에서의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관련 교육을 받기 위한 방식(Q9)’에 대한 문항 조사 결과, 대한민국은 ‘임상 실습’, 미국의 경우 ‘전공 수업’이 가장 많이 선택됐다. 미국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Q2’에서 ‘학습한 적 없음’으로 응답한 것을 고려하면 청소년과 청소년 작업치료에 대한 학습을 전공 수업을 통해 받고자 하는 의사가 높은 것은 수업을 통한 관련 지식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의료보건 계열에서 실습 교육은 교육 효과적 측면에서 우수하고 중요하므로 청소년 영역에 대한 교육은 임상 실습과 전공 수업이 균형 있게 제공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Jung & Ahn, 2017; Kim, 2015).

‘청소년 삶의 질에서 청소년 작업치료의 중요성(Q10)’에 대한 문항에서는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였다($p < .05$). 대한민국과 미국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으나 미국에서는 청소년 작업치료가 청소년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가 미비하다는 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Berg et al., 2009; Punzalan & Hyden, 2009; Read et al., 2018). Lim과 Jones (2017)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에 초점을 맞춘 작업치료가 청소년의 삶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발달을 위해 수행해야 할 작업 및 지식과 연령대에 맞는 적절한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성공적인 성인기로의 전환을 도울 수 있음을 미루어 보아 향후 국내에서도 청소년의 삶의 질에 미치는 작업치료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청소년 작업치료의 발전도(Q11)’에 대한 문항 조사 결과, 양국 모두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를 미루어 보아, 작업치료 대상에 청소년이 포함됨에도 현재 양국 모두에서 이들을 위한 전문 기관과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을 알 수 있다(Ahn & Park, 2022). Jung (2014)의 연구에서 청소년을 위한 집중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라 하며, Lim과 Jones (2017)는 청소년기에서는 성인

기로의 전환에 초점을 맞춘 계획이 중요하다고 한다. 이는 작업치료사의 책무로서, 청소년의 원활한 성인기로의 전환을 돕기 위한 중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작업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지원 방안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 작업치료의 향후 발전 가능성(Q12)’에 대한 문항 조사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5$). 이는 설문 참여 대상자가 대한민국은 학부 학생이 94.5%로 대부분이었고 미국은 대학원 재학생이 90.9%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통해 발전 가능성에 대한 시각 차의 원인을 대상자 특성에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 작업치료를 둘러싼 환경적 요인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1917년 현대적 작업치료의 초석이 마련된 이후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며, 미국 최고의 직업 50선 중 4위(Glassdoor, 2019), 2032년까지 성장 가능성 12%인 직업군(Bureau of Labor Statistics, 2023) 등 미디어나 신뢰도 높은 조사 결과의 공개를 통해 작업치료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작업치료에 대한 미래 발전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이고, 이에 따라 작업치료의 전문화된 한 분야로서 청소년 작업치료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대한민국의 경우 미국에 비해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작업치료 분야에 많은 발전이 있었고, 2020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통해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작업치료사가 포함되는 등의 성과도 있지만(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0), 여전히 작업치료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이 높지 않은 환경이 작업치료를 전공한 학생들로 하여금 청소년 작업치료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지만 그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미국 학생들에 비해 높지 않은 요인이라고 보인다.

대한민국과 미국 모두 현재는 청소년 작업치료 분야가 아동 작업치료, 성인 작업치료처럼 별도의 구분된 전문 분야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학문과 임상 기술의 발전과 함께 대상자의 특성과 그에 따른 맞춤형 치료중재가 필요하고, 이러한 필요성이 커지면

서 전문화된 분야로 자리잡게 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인구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동시에 저출산의 문제에 봉착하고 있으며, 여전히 사회문화적으로는 신체 및 정신적 장애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그 어느 때보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청소년에 대한 전문화된 작업치료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연구가 치료의 효과는 클라이언트에게 맞는 중재를 통해 극대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문화적, 그리고 일상생활의 측면에서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작업치료 전문 분야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앞으로 대한민국과 미국 두 나라 작업치료의 미래를 이끌어갈 예비 작업치료사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작업치료에 대한 인식, 필요성과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초적인 것을 조사한 것이다. 따라서 향후 청소년 작업치료에서 중요한 청소년의 범위, 구체적인 교육 내용, 청소년이 처한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한 조사와 청소년 작업치료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과 그 보호자를 포함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과 미국의 작업치료 전공 재학생들의 '청소년 작업치료'에 관한 인식도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청소년 작업치료에 대한 예비 작업치료사들의 견해 및 발전 가능성과 필요한 교육적 과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청소년 작업치료에 대한 기본적 인식에 있어서 대한민국 학생들에게서 높게 나타났으나 발전 가능성에서는 미국 학생들이 높은 기대를 보였다. 현재 청소년 작업치료 분야의 발전 수준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낮게 평가했고, 청소년 작업치료를 전문화하여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양국 학생들 모두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 간의 차이는 대상 학생들의 교육과정 수준과 임상 실습 여부, 그리고 작업치료 분야에 대한 환경적 요소들이 관여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추후 연구를 통해 검증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과 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의 설문조사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것과 이를 통해 작업치료 분야의 발전과 더불어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청소년 작업치료 분야가 정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해 청소년 작업치료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시행되어야 함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가 향후 청소년 작업치료에 대한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Conflicts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Acknowledgements

R. Bae, I. Kim, P. Rossignol, J. Quiambao, Y. Yu 및 H. Le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게 설문조사 데이터 수집에 대해 감사함.

References

- Ahn, S. B., & Park, H. Y. (2022). Transition program for youth with disabilities: Research trend analysis and systematic review. *Therapeutic Science for Rehabilitation*, 11(3), 23-36. <https://doi.org/10.22683/TSNR.2022.11.3.023>
- Armstrong-Heimsoth, A., Hahn-Floyd, M., Williamson, H. J., & Lockmiller, C. (2020). Toward a defined role for occupational therapy in foster care transition programming. *The Ope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8(4), 13. <https://doi.org/10.15453/2168-6408.1726>
- Berg, C., Neufeld, P., Harvey, J., Downes, A., & Hayashi,

- R. J. (2009). Late effects of childhood cancer, participation, and quality of life of adolescents. *Occupational Therapy Journal of Research*, 29(3), 116-124. <https://doi.org/10.3928/15394492-20090611-04>
- Bureau of Labor Statistics (USA). (2023).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 <https://www.bls.gov/ooh/healthcare/occupational-therapists.htm>
- Compas, B. E., Davis, G. E., & Forsythe, C. J. (1985). Characteristics of life events during adolescence.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3(6), 677-691. <https://doi.org/10.1007/BF00929795>
- Detsky, A. S., Gauthier, S. R., & Fuchs, V. R. (2012). Specialization in medicine: How much is appropriate? *JAMA*, 307(5), 463-464. <https://doi.org/10.1001/jama.2012.44>
- Fedele, D. A., Thomas, J. G., McConville, A., McQuaid, E. L., Voorhees, S., Janicke, D. M., Abu-Hasan, M., Chi, X., & Gurka, M. J. (2021). Using mobile health to improve asthma self-management in early adolescence: A pilot randomized controlled trial.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69(6), 1032-1040. <https://doi.org/10.1016/j.jadohealth.2021.06.011>
- Gardner, J., Mulry, C. M., & Chalik, S. (2012). Considering college?: Adolescents with autism and learning disorders participate in an on-campus service-learning program. *Occupational Therapy In Health Care*, 26(4), 257-269. <https://doi.org/10.3109/07380577.2012.720052>
- Glassdoor. (2019). *50 Best jobs in America for 2019*. https://www.glassdoor.com/List/Best-Jobs-in-America-2019-LST_KQ0,25.htm
- Ha, E. H., Oh, K. J., Song, D. H., & Kang, J. H. (2004). The effects of cognitive-behavioral group therapy for depression and anxiety disorder in adolescents: A preliminary study.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3(2), 263-279.
- Heo, J. C. (2008). A study on the effect of family function on self-identity by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0(3), 123-147.
- Jacobson, L. D., & Wilkinson, C. E. (1994). Review of teenage health: Time for a new direction. *British Journal of General Practice*, 44(386), 420-424.
- Jeong, S. Y., & Sin, J. I. (2019). Occupational therapists and occupational therapy students comparison of awareness and demand for driving rehabilitation. *Journal of Korean Aging-Friendly Industry Association*, 11(2), 163-176. <https://doi.org/10.34264/jkafa.2019.11.2.163>
- Jones, M. K., Weerakoon, P., & Pynor, R. A. (2005). Survey of occupational therapy students' attitudes towards sexual issues in clinical practice. *Occupational Therapy International*, 12(2), 95-106. <https://doi.org/10.1002/oti.18>
- Jung, N. H. (2014). A systematic review on effects of school-based occupational therapy. *The Journal Korean Academy of Sensory Integration*, 12(1), 25-38. <https://doi.org/10.18064/jkasi.2014.12.1.025>
- Jung, S. H., & Ahn, S. J. (2017). The perception and satisfaction survey of human anatomy dissection course taught by health science departments: Biomedical laboratory science, physical therapy, and occupational therapy. *Korean Journal of Clinical Laboratory Science*, 49(4), 489-494. <https://doi.org/10.15324/kjcls.2017.49.4.489>
- Kang, H. Y. (2014). *How to overcome depression in youth: Focusing on Aaron Beck's cognitive therapy theory* (Master's thesis). Hanil University &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 Kim, D. H. (2015). The effect and suggestions for operation of cadaver dissection program for dental hygiene students. *Korea Journal of Physical Anthropologists*, 28(4), 213-221. <https://doi.org/10.11637/kjpa.2015.28.4.213>
- Kim, S. E., & Jang, C. (2023). A study on the effects and needs of educational programs on awareness and preference for sensory integration intervention: Focusing on college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grative Medicine*, 11(1), 113-120. <https://doi.org/10.15268/ksim.2023.11.1.113>
- Kim, K. T., & Yang, Y. A. (2020).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s of the elderly and the elderly-friendly industry: Target of occupational therapy. *Journal of Korean Aging-Friendly Industry Association*, 12(2), 89-99. <https://doi.org/10.34264/jkafa.2020.12.2.89>
- Koenig, V. E. (2021).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a viable level II occupational therapy fieldwork program in a juvenile justice setting. *Annals of International Occupational Therapy*, 4(1), 44-52. <https://doi.org/10.3928/24761222-20200923-02>
- Lee, J. Y., Choi, W. H., Lee, I. K., & Jung, S. M. (2018). Percep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 by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12(6), 187-194. <https://doi.org/10.21184/jkeia.2018.8.12.6.187>
- Lee, H. S., Park, S. H., Kim, Y. J., Noh, C. S., Yoon, Y. Y., & Lee, K. M. (2015). Practice analysis among Korean school based occupational therapists. *Korean*

-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23(4), 17-33. <https://doi.org/10.14519/jksot.2015.23.4.02>
- Lim, S. M., & Jones, F. (2017). *Occupational transitions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In S. Rodger & A. Kennedy-Behr (Eds.), *Occupation-centred practice with children: A practical guide for occupational therapists* (2nd ed., pp. 111-132). Wiley-Blackwell.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Korea). (2020). *Framework act of youth*, Article 3, Subparagraph 1. https://elaw.klri.re.kr/eng_mobile/viewer.do?hseq=54732&type=part&key=4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Korea). (2022). *Youth protection act*, Article 2, Subparagraph 1.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0815#0000>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2020).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In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rticle 17, Paragraph 2.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7301#0000>
- Nguyen, C. T., Krakowiak, P., Hansen, R., Hertz-Picciotto, I., & Angkustsiri, K. (2016). Sociodemographic disparities in intervention service utilization in families of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46(12), 3729-3738. <https://doi.org/10.1007/s10803-016-2913-3>
- Park, Y. J. (2009).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regulation style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emotional clarity and adolescents depressive symptoms*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Pasek, P. B., & Schkade, J. K. (1996). Effects of a skiing experience on adolescents with limb deficiencies: An occupational adaptation perspective.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50(1), 24-31. <https://doi.org/10.5014/ajot.50.1.24>
- Punzalan, M., & Hyden, G. (2009). *The role of physical therapy and occupational therapy in the rehabilitation of pediatric and adolescent patients with osteosarcoma*. In N. Jaffe, O. Bruland, & S. Bielack (Eds.), *Pediatric and adolescent osteosarcoma. Cancer treatment and research* (vol. 152). Springer. https://doi.org/10.1007/978-1-4419-0284-9_20
- Read, H., Roush, S., & Downing, D. (2018). Early intervention in mental health for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A systematic review.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72(5), 7205190040p1-7205190040p8. <https://doi.org/10.5014/ajot.2018.033118>
- Sawyer, S. M., Azzopardi, P. S., Wickremarathne, D., & Patton, G. C. (2018). The age of adolescence. *The Lancet: Child & Adolescent Health*, 2(3), 223-228. [https://doi.org/10.1016/S2352-4642\(18\)30022-1](https://doi.org/10.1016/S2352-4642(18)30022-1)
- Stratton, J., & Gailfus, D. (1998). A new approach to substance abuse treatment. Adolescents and adults with ADHD. *Journal of Substance Abuse Treatment*, 15(2), 89-94. [https://doi.org/10.1016/s0740-5472\(97\)00026-3](https://doi.org/10.1016/s0740-5472(97)00026-3)
- Tremblay, S., Lal, S., Xiang, L., Ferro, M. A., & Anaby, D. (2023). Organization of rehabilitation services for youth with physical disabilities and mental health problems: A scoping review. *Frontiers in Rehabilitation Sciences*, 4, 1085827. <https://doi.org/10.3389/fresc.2023.1085827>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3). *Adolescent health*. https://www.who.int/health-topics/adolescent-health#tab=tab_1

Analysis of Occupational Therapy Students' Awareness of Adolescent Occupational Therapy: A Comparative Study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Bae, Su-Bin*, Shin, Chae-Rim*, Seo, Hyo-Won*,

Lee, Min-Gyung*, Kim, Eun-Taek*, Kam, Kyung-Yoon**, Ph.D., O.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College of Healthcare Medical Science and Engineering, Inje University, Undergraduate Studen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College of Healthcare Medical Science and Engineering, Inje University, Professor

Objective :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awareness of adolescent occupational therapy (AOT) among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occupational therapy (OT)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rough an online survey.

Methods : This online survey was conducted from January 9 to 13, 2023 to investigate the awareness about AOT among 55 students majoring in OT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 online survey was formulated in Korean and English.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an independent *t*-test.

Results : In response to the question "Have you ever heard of AOT?", 65.5% of Korean students answered yes and 58.2% of the United States students answered no. In both countries, the average score for the question "Can AOT help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eenagers?" was the highest, while the score for "Is AOT sufficiently advanced in your country?" was the lowest. For "Potential for future development of AOT," the scores for the two countrie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p < .05$).

Conclusion : Students in both countries acknowledged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AOT, but there were differences noted in terms of prospects of the therapy.

Keywords : Adolescent occupational therapy, Awareness, Korea, United States